인민의 어버이

2024년

《이민위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이고 나의 좌우명인 동시에 김정은동지의 좌우명입니다. 김정은동지는 인민을 한없이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습니다.》

김 정 일

차 례

삼가 붓을 들며

조선인민이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품에 안긴 때로부터 어언 10여년!

그 10여년세월 늘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시고 고난도 시련도 함께 헤치시며 인민의 꿈과 행복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에서 조선인민모두가 이 나라 수천만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불면불휴의 헌신의 세계를 마음속 깊이 절감하였다.

인민의 어버이!

진정 이 부름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인민이 삼가 드리는 칭송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조선에서의 정치조직과 최고정책적지도기관에서 가지게 되는 공식적인 최고직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어버이라는 말은 혈연적인 의미를 안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누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많고많은 존칭들가운데서도 어버이라는 존칭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또 즐겨 쓰고있다.

인민의 어버이라는 부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슬하에서 친부모에게서도 다 받을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조선인민모두의 마음속진정의 웨침이다.

바로 이런분을 조선인민은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어버이, 인민의 어버이라고 높이 부른다.

피줄을 나눈 친아버지나 어머니이상의 사랑과 정을 다 부어주시며 인민들을 위한 천만사모두를 돌보시는 이런 위대한분에 대한 호칭을 조선인민은 아직 찾지 못하고있다.

이제 삼가 붓을 들어 그 위대한 부름의 세계를 써나가려 한다.

1.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고 받드시는 어버이

1)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시는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라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확고한 관점이다.

아무리 귀중한 존재, 힘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여도 인민이상으로 귀중한 존재, 인민보다 힘있는 존재란 있을수 없다고 보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러한 숭고한 인민관은 《인민이 있어 당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명언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당도 그 당이 이끄는 정부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위대한 철리를 새겨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다.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따뜻이 품어주고 다심한 손길로 이끌어주며 온 세상이 보란듯이 내세워줄 때에만 당도 정부도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시는분, 인민의 존엄과 행복, 기쁨속에 당과 조국의 존엄과 영예, 눈부신 자태가 있을수 있다고 보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이끄시는 령도자이시지만 자신을 인민의 복무자로 간주하시며 마음속 진정을 이렇게 터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

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 맹세는 인민을 제일로 여기시는 인민의 어버이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인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의 첫째가는 기준, 절대적기준을 오직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두신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절대적인 귀중성을 가지는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중에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보다 더 중차대한것이 없다.

언제나 심중에 인민을 중시할데 대한 관점만이 꽉 차있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디서 어떤 일을 대하시여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그들이 기뻐하는가,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볼수 있는것인가,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주는 점은 없겠는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고 편의를 더 잘 보장해주자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심하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세워주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 지향에 맞지 않게 사업을 하였거나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안색을 흐리시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격분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돌우에라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끝없이 걷고 또 걸으신다.

사실 돌우에 꽃을 피운다거나 하늘의 별을 따온다는것은 실현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격언들이 인간생활에서 쓰이고있는것은 설사 일반상식이나 능력으로써는 불가능한것이라 할지라도 진정을 고이고 열정을 바쳐 기어이 이루어내려는 인간의 높은 정신세계와 노력에 대하여 찬미하기 위해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있어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

2015년이 저물어가던 12월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거기에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인민을 위해 일군들이 멸사복무의 자욱을 끝없이 새겨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이런 위대한 인민을 위한 일,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위함이라면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실현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일관한 관점이며 드팀없는 의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좌우명, 애국의 좌우명에 대하여 자주 회고하시며 우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시는것이다.

인민을 나라의 근본이라는 가장 신성한 위치에 놓으시고 인민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시는분이시여서 혁명령도의 첫 시기에 내놓으신 구호도 다름아닌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이다.

어느해 7월이였다.

경성군에 자리잡은 비행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기에는 정말 명당자리라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정수리를 태운다는 여름날 정오의 따가운 해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비행장이 넓고 땅도 비옥하다고, 이런 광활한 옥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격정속에 우러르는 수행성원들가운데는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일군도 있었다.

(명당자리!)라고 속으로 외워보는 그의 뇌리에 며칠전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고있었다. 어랑천5호발전소를 돌아보고있을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문득 경성군에 있는 비행장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을 통해 비행장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현듯 책임일군에게 거기에 남새온실농장을 하나 건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과 군용비행장을 두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물으시는 바람에 그는 어리둥절하여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도당위원장(당시)이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니라고 유쾌한 어조로 말씀하시더니 이미 있던 비행장을 내고 그 자리에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함경북도인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고 다시금 정깊이 물으시는것이였다.

순간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함경북도는 북부해양성기후인것으로 하여 다른 지대보다 남새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도의 전반사업을 책임진 그의 마음속에는 청진시를 비롯한 도안의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의 걱정거리로 묵직이 매달려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무리 중하다한들 군용비행장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할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그때의 놀라움은 그의 마음속에 풀수 없는 의문으로 남았었다.

그런데 바로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현지에 오게 된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푸른 하늘아래 아득히 펼쳐진 비행

장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면 함경북도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보장해주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오다가 여기 비행장을 내고 현대적인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릴 결심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문제가 풀리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도당책임일군은 그이께서 며칠전 이 비행장의 면적을 알아보시면서 거기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는것이 어떻겠는가 물으시고 또 지금은 비행장을 직접 돌아보시며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의 명당자리라고 기뻐하시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였다.

인민, 바로 인민때문이였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어버이이시기에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못할 대용단도 서슴없이 내리시고 조국보위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장도 통채로 내여주시는것이다.

정녕 인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내세우시며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인민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이며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아가고있다.

2) 조선인민을 절대적높이에 올려세우신분

2012년 1월 3일.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면 인민들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들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3년후 2015년 2월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모시는것처럼 조선인민을 받들려는 확고한 의지를 온 세계앞에 선언하시는 인민의 령도자!

인류력사의 그 어느 시대에도 인민은 존재하였으며 그 어느 나라에 가보아도 너무도 쉽게 그리고 흔히 만날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인민들이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수령을 모시는것처럼 정히 받드는 위인,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준 위인은 동서고금 그 어느 력사에도 있어본적이 없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분, 사상과 령도력, 담력과 배짱, 고매한 인품과 풍모 등 그 어느 면에서도 제일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 절대적높이에까지 평범한 인민을 올려세우

신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이렇듯 조선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 절대적높이에까지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엄이고 권위이자 조선인민의 존엄이고 리익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있어서 인민을 받들고 위해주는데서 《적당히》 혹은 《어느 정도》, 《그쯤하면》이라는 말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인민을 내세우고 위하는 길에서는 언제나 최고의 높이, 최상의 수준이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일관하고도 투철한 립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는 인민의 리익을 보장하고 존엄을 지키는 일에서는 일정한 한계나 어느 정도까지라는것이 있을수 없으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여야 한다는 절절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언제인가 만경대유희장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준 현지지도였다.

그날 유희장구내를 거니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도로가 심히 깨지고 보도블로크사이로 잡풀이 돋아난것을 보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고 한포기한포기 풀을 뽑으시며 일군들의 눈에는 이런것이 보이지 않는가고 질책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과 관리성원들의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령이 아니라 그이하이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계속하시여 만경대유희장의 현실태는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간직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당의 의도를 잘 받들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일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해 어떻게 뛰여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었다.

다음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당일군들이 인민관을 바로가지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과 한 전호에서 싸운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받들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는 인민을 받들고 위하는 사업이 항구적인 중대사로 간주되여야 한다는 깊은 의미도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드시는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리념에 근본초석을 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계승하고 높이 받들어나가시기 위하여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민위천, 위민헌신을 자신의 삶과 투쟁의 절대적인 좌우명으로 삼고계시기에 그이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놓여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7년을 맞으며 하신 신년

사에서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자신을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시며 인민을 끝없이 위해주고싶으신 자신의 심중을 그리도 무겁게, 그리도 뜨겁게 터놓으시였던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 높이에서 인민을 받드시는 숭고한 관점을 지니신분이시다.

2. 위민헌신의 려정을 이어가시는 어버이

1) 멸사복무의 맹약

2017년 1월 1일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으며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눈물을 많이도 흘린 날이다.

지금도 그날을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지시던 엄숙한 맹약이 귀전에 들려와 인민의 어버이를 령도자로 모신 무한한 긍지와 자부에 넘치는 조선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입니다.》

2017년 새해의 첫아침에 전체 인민들앞에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엄숙한 맹약은 조선인민들로 하여금 그 깊이를 다는 헤아릴수 없는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세계를 마음속 깊이 절감하게 하였다.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크나큰 행복과 한없는 긍지를 담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오늘도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더욱 행복해질 래일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던 그 시대를 잊지 못하고

있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들을 때면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이 떠올라 뜨거운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조선인민이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조선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왔다. 남들같으면 도저히 넘을 엄두조차도 낼수 없었던 큰 산들을 넘어오느라 조선인민은 언제한번 허리띠를 풀어본적이 없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왔기에 보다 행복할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었다. 바로 그래서 조선인민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지어 온 세상에 소리높이 부르며 살아왔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시대에 높이 울려퍼지던《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대를 이어 영원히, 더욱 힘있게 울려퍼지게 하실 자신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의 이날 전체 인민들앞에 엄숙히 선언하신것이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로 기어이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조선인민은 모두다 세상에 부럼없는 친형제이라고 노래부르던 그때의 기쁨을 지나간 력사의 순간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 펼쳐놓아야 한다, 세상에 부럼없는 조선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더욱 번영할 우리 조국과 더불어 래일에로 끝없이 이어져나가게 해야 한다는 맹세로 심장을 끓이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4년 4월 준공을 앞둔 송

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던 그날에도 야영소에 게시된《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구호를 보시며 자신의 진정을 이렇게 터놓으시였다.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구호는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우리 인민모두에게 해당되는 구호이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우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앞에 다지신 엄숙한 맹약은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실 뜨거운 진정의 분출이였다.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칭송하듯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21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 가장 위대한 혁명가이시다.

하건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을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아들로만 여기신다. 인민이 있어 자신도 있고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값높은 삶과 행복이 있다고 보시는분이시여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을 맹약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엄숙한 이 맹약에 대해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은 어느 한 글에서 자기의 격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정녕 인민에 대한 사랑을 그 어떤 정치적의지나 령도자의 의무로가 아니라 량심으로, 천품으로 지니신분만이 하실수 있는 맹약이라고 생각한다.》

진정 인민의 어버이를 높이 모시여 조선에서는 세상 그 어느 나라 사전에도 없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말이 태여난것이 아닌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인민을 이 세상 제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색과 실천의 전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4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자리에서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근본사명으로 내세우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기에 언제인가 문수물놀이장에 설치한 시계가 한동안 멎어있은 사실을 두시고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관한 문제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리용하는 문수물놀이장의 시계가 멎은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군들의 심장이 멎은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2024년 세계의 수많은 사회교제망리용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험천만한 피해현장을 찾으신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들을 련이어 올렸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고무단정을 타고 이처럼 위험한 곳을 찾은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다. 아마도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마음속에 인민이 차지하는 자리가 대단히 큰것같다.》

《나는 서방의 그 어느 국가수반도 큰물이 난 지역의 한복판에까지 뽀트를 타고 나가는것을 보지 못했다. 조선의 령도자께 경의를 드린다.》

《일국의 국가원수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까지 나가실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정말 존경할만한분이시다.》

《재해상황에서 조선의 령도자께서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고 인민을 관심하고 배려를 돌려주신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시는 진실한 국가수반! 관건적인 시각에 인민과 함께 계시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다.

진정 세계가 우러르는 이런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조선인민이 살고있다.

2)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의 한 부분이다.

위대한 인민!

주옥같은 명제들속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위대한 우리 인민!

참으로 가슴뜨거운 부름이다.

2015년 1월 2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들은 지금까지 적들과 맞서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긴장한 투쟁을 벌리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느라 언제 한번 풍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였다고, 생활상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순결한 도덕의리를 다해가고있는 이처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주지 못하는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는 비록 작은것이라도 인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문제를 풀어주고 많은것은 아니라도 인민들에게 무엇이 차례지게 하였다는 보고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자식을 둔 부모치고 제 자식이 배곯는것을 가슴아파하지 않을 부모는 없다. 제 자식들을 남보다 짝지지 않게 입히고 신기기 위해 애쓰지 않는 부모도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 수천수만의 가정이 있고 가정마다

부모가 있어도 그들이 기울이는 사랑은 제가 낳아 키운 자식들이거나 간혹 가까운 친지들에 대한 사랑으로 한정되여있다. 세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친자식, 친혈육으로 여기시고 그토록 따뜻한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어버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시고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끊임없이 새겨가시는분이시다.

사실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과 국가는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첫날부터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세대와 세대, 세기와 세기를 넘어오며 감행되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검질긴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맞받아 뚫고오느라 조선인민은 언제한번 허리띠를 풀지 못하고있으며 아직도 생활상곤난을 적지 않게 겪고있다.

어려운 조건에서 긴장한 투쟁을 벌리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느라 언제한번 풍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한 조선인민, 생활상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조선로동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순결한 도덕의리를 다해온 조선인민에게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가슴아픈 생각으로 한밤을 지새우시고 새날을 맞군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그래서 신년사를 하시거나 일군들에게 어떤 가르치심을 주실 때에도 그렇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실 때에나 당과 국가의 중요회의를 하실 때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말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물질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자신이 돌보셔야 할 천사만사의 국사들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국사로 내세우시기에 밤이나 낮이나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이나 해볕이 쨍쨍 내려쪼이는 삼복의 무더위를 가리지 않으시고 온 한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속에 공장, 기업소, 농촌벌들과 수산기지들에 계신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안고있는 근심과 걱정거리들가운데서 첫째가는 걱정거리는 자기 자식들을 잘 먹여 내세우는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들을 먹여 그들이 튼튼하게 자라나도록 하겠는가 늘 걱정하는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자식들을 잘 먹여 내세우려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무리 강렬하다고 하여도 그것은 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온 나라 대가정의 가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을 잘 먹여 내세워주기 위하여 누구보다 많은 근심걱정을 안으시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기지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로고에 로고를 바쳐가신다.

허리띠를 조이며 일편단심 조선로동당만을 굳게 믿고 따라온 조선인민의 식탁을 하루빨리 풍성하게 해주자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일관하고도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신념과 의지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멀고 험한 길들을 걷고 또 걸으신다.

그 위민헌신의 려정에서 중평온실농장과 강동종합온실농장을 비롯한 대규모온실남새생산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의 식탁에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가 오르게 되였다.

오늘 조선인민이 쓰고사는 생활필수품에도 다심한 어버이의 사랑과 정이 깃들어있다.

겉옷과 속옷, 신발과 양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다

양한 생활필수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높아진다.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옷과 내의류, 신발과 양말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주어 다른 자식들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내세우려는것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하나와 같은 심정이다.

자식들을 위하여 스스로 걸머진 어머니들의 책임을 자신께 지워진 가장 큰 의무, 가장 신성한 책임으로 간직하고계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기들의 속생각도 스스럼없이 터놓는 밑바탕에는 자기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그 진정과 노력에 감복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뿐 아니라 문명한 생활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는분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의 문명수준을 높여주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이 많으신가 하는것은 전체 인민을 지식형의 인재들로 키우실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신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3년 6월 어느날 평양기초식품공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이날 공장의 과학기술보급기지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민무장화라는 말이 있는데 원격강의실에서 원격교육을 받는것을 전민학습체계라고 하여야 할것 같다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데서 원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 땅 그 어디에 가나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된 근로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날 그날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벌써 기쁨에 겨워 그려보신것이다.

그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

게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전민무장화의 구호를 들고 전체 인민을 그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킨것처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제는 조선인민 누구에게나 귀에 익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말은 이처럼 조선인민을 현시대의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해나가는 미더운 역군들로 준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구상에 의하여 생겨나고 국가의 발전리념으로, 주요전략으로 책정되게 되였다.

전체 인민을 새시대의 문명을 개척해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에 따라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일떠섰으며 그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과학기술보급망이 형성되고 부문별중앙자료기지들이 망으로 련결됨으로써 어디서나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열람할수 있는 보급체계가 형성되였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그쯘하게 꾸려진 과학기술보급거점들에서 사색과 탐구의 나래를 마음껏 펴고 창조의 세계를 종횡무진하는 사람들의 미더운 모습은 조선인민을 앞날의 훌륭한 인재들로 키워 사회주의문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어버이사랑이 안아온것이다.

세계를 둘러보면 일정한 분야에서 뛰여난 인재들을 배출하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근로하는 인민모두를 훌륭한 인재로 키워 그들이 과학기술로 조국을 더욱 흥하게 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나라는 없다.

전체 인민이 참다운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그 당당한 주인으로 자라나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선진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는 미더운 과학기술인재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먼곳에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것은 어머니의 심정이다.

지방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늘 마음써오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신데 이어 2024년 1월에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시여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친부모를 모시듯이 스승을 일생토록 따르는것은 인간고유의 미덕일진대 사회성원들모두를 더 높은 문명의 세계에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스승을 인민들이 친어버이로 칭송하며 우러러 따르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3. 화목한 대가정의 어버이

1) 동지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과 조선인민사이에 맺어진 혈연의 정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열렬한 감정으로 승화되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개회하시면서 총결기간 주체혁명의 먼길을 걸어오며 사회주의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혁명전사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불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갈리신 음성에는 먼저 떠나간 전사들을 못잊어하는 어버이의 사랑과 정이 뜨겁게 어리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７차대회를 폐회하시면서도 평온한 날에나 어려운 날에나 가식과 변심이 없이 령도자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다 먼저 떠나간 잊을수 없는 혁명동지들의 이름과 모습들이 선히 떠오른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서지 못하였지만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의 진정한 동지가 되여 간고한 시련의 길을 헤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귀중한 혁명전우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정을 주고 믿음을 주신 사람들, 끝까지 아끼고 믿어주시며 내세워주고 보살펴주신 사람들가운데서 제일먼저 꼽아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항일의 로투사들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자신의 곁을 떠날 때마다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인민의 큰 손실로, 상실로 된다시며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고 이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갈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며 꺼져가는 생

에 활력을 부어주시던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혁명의 1세, 2세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을 우리 혁명의 원로로 내세우고 존대하며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세심히 돌봐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을 언제나 혁명대오의 제일 앞장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2012년 2월 조선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훈장이 제정되고 이어 수여식이 진행되였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 크게 기여한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과 함께 항일혁명투사들에게 **김정일**훈장이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항일혁명투사들을 **김정일**훈장의 첫 수훈자들로 내세우신데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웅심깊은 사랑과 믿음이 깃들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내세우기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항일의 로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면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도 함께 참가하군 하는데 그이께서는 언제나 현직일군들보다도 항일의 로투사들을 자신의 제일 가까이에 세워주군 하시였다.

항일의 로투사들이 자신과 제일 가까운 위치에서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심으로써 자신께서 항일혁명투사들을 제일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신다는것,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전진해나가는 혁명대오의 맨 앞장에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항일혁명투사들이 서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신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열린 2015년 7월 25일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도 헤치고 가렬한 전화의 언덕도 넘으며 한생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로투사들이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들이 기다리고있는 어느한 방에 들어서시자 투사들은 감격에 겨워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자애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륜차에 앉아있는한 항일혁명투사에게로 다가가시여 인사를 나누시였다.

다정히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손을 꼭 잡는 로투사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맺히였다.

로투사의 눈물을 몸소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며 각별한 정을 부어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오늘 대회가 오랜시간 진행될수 있는데 할머니가 오래 앉아있어도 일없겠는가고, 요새 건강상태가 어떤지 근심이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진 일군이 목메인 소리로 일없다고 대답올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시는듯 일군들에게 모두 대회장으로 나가자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대회장으로 나가려고 할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밖에도 로투사들을 먼저 앞세우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선배들을 내세우는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의리이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마땅히 혁명의 1세대들인 항일의 로투사들이 앞장에서 나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로투사들은 가슴이 후더워올라 두눈을 슴벅이였다. 일군들도 눈굽이 젖어들었다.

이렇게 되여 혁명의 1세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보다 먼저 대회장으로 들어서는 감명깊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이제나 저제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등단하실 시각을 기다리던 전쟁로병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보다 먼저 주석단으로 나오는 항일의 로투사들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아니 전체 조선인민이 그 뜻깊은 화폭을 접하며 어버이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다.

진정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혁명선배들의 삶이 값높이 빛나고 조선사회에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활짝 꽃펴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항일의 로투사들의 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항일의 로투사들을 만나주시거나 그들의 생활을 료해하실 때마다 매번 목격하게 되는것은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의 건강은 어떠한가에 대한 어버이의 다정한 물으심이였고 건강을 잘 돌봐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친자식된 심정에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마음을 놓으시였고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면 제일로 가슴아파하시며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정, 믿음이 있어 항일혁명투사들은 오늘도 래일도 조선혁명의 제일선에서 새 세대들에게 백두의 기상과 수령결사옹위의 넋을 굳건히 심어주고있다.

2)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깁니다.》

이 말씀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을 며칠 앞둔 2012년 7월 21일에 하신 말씀이다.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

한번 불러만 보아도 혈연의 정을 한껏 느낄수 있게 하는 이 부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에게 불러주신 값높은 부름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에 전쟁참가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운명은 각이하다.

전쟁에서의 공로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세월의 이끼속에 묻히고 로병으로서의 존대는 고사하고 조롱과 멸시속에 가슴아프게 생을 마치는것이 오늘날 대부분 나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로병들의 처지이다.

허나 인민과 혈연의 정을 맺으시고 혈연의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품이 있어 조선의 전쟁로병들의 삶은 그토록 빛나고있는것이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를 둘러보아도, 세계정치사를 돌이켜보아도 전쟁로병들을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로병들에게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는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극진한 보살피심은 그 어떤 도덕의리나 령도자로서의 의무감에서만 오는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있어서 전쟁로병들은 바로 자신과 혈연의 피줄을 이은 친혈육들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을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라고 뜨거운 사랑과 정을 담아 불러주시고 혈연의 정으로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것이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혈연의 정은 해마다 전승절이 오면 온 나라의 전쟁로병들을 자신의 가까이에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2012년 7월 앞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평양으로 모여온 전쟁로병들의 모습은 조선인민들,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을 맞으며 경축행사를 진행할것을 발기하시고 필요한 대책들을 다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병대표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이께서 사랑의 미소를 보내시며 로병대표들에게로 다가오시여 열광적으로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로병대표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실 때 전체 로병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인생의 크나큰 영광을 맞이한 전체 로병대표들의 가슴은 끝없이 설레였다.

정녕 조선로동당력사에 제2차 전국로병대회로 아로새겨진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경축행사는 조선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이였으며 이를 계기로 조선의 전쟁로병들은 세상이 부럽도록 영광의 단상에 올라서게 되였다.

그후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친필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를 정중히 모신 《승리》상을 중심으로 드넓게 꾸려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승리》상의 대돌에 금별처럼 빛나는 그 한 글자, 한 글자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 우리 조국의 승리의 년대기에 자욱을 남긴 조선인민모두에게 드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최대의 경의이며 위대한 전승세대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그이의 열렬

한 격정이 함축된 글발이다.

이 글발과 더불어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7.27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누구나 절감하게 하고 조선의 모든 전쟁로병들이 인생의 황혼기에도 전승의 그날의 환희를 깊은 추억속에 되새겨보게 하는 뜻깊은 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높이 존대하고 내세워주고계신다.

혁명선배라고 하면 혁명에 먼저 참가하여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혁명에 먼저 참가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며 후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 존대를 받는것은 도덕적견지에서 볼 때 너무나도 응당하고 마땅한것이다.

혁명선배는 결코 자기 세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혁명을 하였기때문일것이다.

어제가 있어 오늘과 래일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선대가 있어 후대가 있으며 지난날 혁명에 쌓아올린 혁명선배들의 고귀한 투쟁공적이 있어 새 세대들의 오늘과 래일의 행복한 삶이 있게 된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고 법칙이다.

그러나 혁명에 먼저 참가한 사람들이 후대들에 의하여 혁명선배라는 값높은 부름으로 높이 존대되고 후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자면 그들의 공적과 위훈, 그들이 지녔던 사상정신세계를 그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가장 값진 재부로 간직한 위인, 그들을 지켜주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버이가 있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전쟁로병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공로와 그들이 지녔던 사상정신세계를 제일로 중시하고계신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최강》을 떠벌이던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기고 민족

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것은 인류전쟁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군사적기적이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형언할수 없이 힘겨웠으며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이기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행성에 거의나 없었다.

그러나 3년간에 걸치는 가렬한 판가리싸움에서 조선인민은 세인의 예상을 뒤집고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둘도 없는 조국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조선은 영웅의 나라, 기적의 나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바로 조선의 전쟁로병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의 체현자이시며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가렬처절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어머니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한 위대한 년대의 참전자들, 승리자들이다.

그러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치한치의 땅을 지켜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점을 막고 육탄으로 적기와 땅크를 맞받아나간 영용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이 아니였다면 존엄높고 강대한 사회주의 조국, 삶의 보금자리가 없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쟁로병들에게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주신것이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값높은 평가는 단순히 그들이 세운 공적에 대한 경의로만 그친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을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만이 아니라 혁명의 대를 이어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내세워주고계신다.

2013년 7월 1일 완공단계에 이른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군인들이 높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애국주의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핵으

로 하는 조국수호정신은 오늘의 새 세대들이 이어받아야 할 가장 값높은 사상정신적유산이라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피로써 조국을 수호하였을뿐 아니라 자기들의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을 새 세대들의 심장마다에 죽어도 버릴수 없는 억척같은 신념으로 새겨주고있는 조선의 전쟁로병들이 더없이 미덥고 고마우시여 혁명선배라는 숭고한 부름으로 높이 존대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런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조선의 전쟁로병들은 이 세상 그 어느 전쟁참가자들도 체험할수 없고 자부할수 없는 행복의 세계에서 값높은 삶을 누려나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대해같은 은정을 거듭거듭 베풀어주고계신다.

정녕 이런 위대하신 어버이, 조선의 전쟁로병들이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안기여 사는 은혜로운 품이 있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영웅적위훈과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의 전당으로 웅건하게 솟아오르고 력사에 전무후무하게 조선로동당이 묘주가 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풍치수려한 평양시의 명당자리에 일떠서게 되였으며 전국 각지에도 인민군렬사묘들이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금별로 영원히 아로새기며 새롭게 꾸려질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전쟁로병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드리신 경의는 오늘에 이어 래일에도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3) 눈물도 많으신 분

언제나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인민들과 아이들, 벗들을 따뜻이 대해주시면서도 눈물이 많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얼마 없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결코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지난 10여년간을 즐거움과 만족만을 체험하시며 기쁨과 웃음속에서만 사신분이 아니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눈물도 많으신분이시다.

조선인민을 비롯한 진보적인류가 TV화면이나 사진에서 뵈옵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은 언제나 웃고계시는 자애로운 영상이시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간이 겪을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아픔으로 하여 눈물도 많이 흘리시는분이시다.

담력과 배짱에 있어서 제일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누구보다 크나큰 마음속아픔을 안으시고 남모르는 눈물도 더 많으신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 뜨거운 인정때문이다.

인정은 자기 아닌 남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위해주는 인간의 사상감정이다.

예로부터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고 하였다. 아무리 뚝하고 바위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정앞에서는 머리를 수그리고 입을 열기마련이다. 그래서 사람은 산천에 매여사는것이 아니라 인정에 매여산다고도 한다. 인간이 사는 곳에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산천도 빛을 잃는 법이다.

인간의 각이한 사상감정중에서도 제일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이 인정이라면 인정의 가장 솔직한 표현의 하나가 바로 진정이 고인 눈물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은 눈물이 많은것이 좋다고,

차고 쌀쌀한 사람은 울라고 해도 눈물 한방울 떨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릴줄 아는 영웅이 진짜영웅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인간을 대하는 인간의 꾸밈없는 눈물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진실한 애정의 표현이다. 남을 위해 흘릴 눈물이 없는 사람은 메마르고 리기적이며 위선적인 사람이다. 참다운 사랑, 진실한 인간애는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속에 담겨지는 인간의 따뜻한 정이다. 남을 위해 눈물도 흘릴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를 희생할수 없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바쳐 싸우는 진짜영웅도 될수 없는 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시련과 역경이 앞에 가로놓일수록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더 굳게 단결하고 그 위력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에 대한 애정, 혁명동지들에 대한 우정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신다.

기쁨보다도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인간의 감정은 사람들이 나눌수 있는 사랑과 정가운데서도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것이다.

참다운 우정과 애정으로 얽혀진 사람들사이에는 불행과 고통을 겪을 때일수록 서로 생각해주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며 우의와 사랑도 더 뜨겁게 오간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남의 불행을 진심으로 동정하는 인간의 따뜻한 감정이 인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슬프고 가슴아프시여 눈물을 흘리시는 때는 사랑하는 혁명동지들을 잃었을 때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제일 아프게 하는것은 바로 살아숨쉬던 사랑하는 사람이 운명하는것이다. 함께 울고 웃으며 생활하던 사람이 운명했다고 하면 누구나 눈굽이 젖어들고 마음이 쓰려오는것을 어쩔수 없어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인정이 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누는 인정의 진가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곁을 떠난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설사 살아서 죽자살자하며 정을 나누던 사이였다 해도 살아서 함께 나누던 정이 어느 한쪽의 운명으로 하여 깨끗이 말라버리고만다면 그것을 진실하고 참다운 우정이였다고 할수 없다.

이 세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사랑하는 전사들을 잃을 때마다 통절한 비애에 잠기시여 하염없는 눈물을 쏟으신 그런 진실하고 뜨거운 인정미의 체현자는 없을것이다.

어느해 인민군 해군용사들이 전투임무수행도중 뜻하지 않게 희생되였을 때였다.

그들은 지난날 그 어떤 영웅적위훈을 세워 누구나가 다 아는 유명한 전투원들이 아니였다. 다만 혁명의 군복을 입고 성실한 복무의 자욱자욱을 새겨오다가 전투임무수행도중 최후를 마친 평범한 군인들이였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귀중한 전사들을 잃은것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잠 못 이루시며 그들의 희생을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여주시려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인가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사진들을 액틀에 넣어 당마크가 새겨진 붉은 천에 싸서 유가족들에게 안겨주시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시였다.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동지애의 화폭은 이뿐이 아니였다.

사랑하는 전사들의 모습을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추억속에 길이 남겨주시려 용사묘의 형성안을 여러 차례나 보아주시며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고 용사묘가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모든 일을 뒤로 미루시고 한달음에 달려가시였다.

떠나간 전사들을 잊지 못해하시며 용사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용사묘에는 응당 묘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으라고 이르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말씀이여서 일군들은 모두다 굳어졌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력사의 갈피에 전투임무수행도중에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에 최고사령관의 이름을 새겨넣은 례는 없었던것이다.

이것은 진정 병사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동지애의 숭고한 화폭이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정의 세계, 떠나간 혁명전사들에 대한 의리의 세계에 의하여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애국렬사의 고귀한 칭호를 받고 영생의 언덕에 올랐다. 이들의 대오속에는 과학자, 교육자들과 예술인들도 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혈연의 정을 잇고 사는 조선인민은 세상에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정과 믿음에 의하여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한 인생의 영광을 받아안으며 존엄높은 인민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빛내여나갈것이다.

4) 정치적생명의 보호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의 대지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따뜻이 품에 안아 소중히 여겨주고 상할세라 그늘이 질세라 관심하며 그들의 운명과 미래를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정치적생명의 위대한 보호자이시다.

설사 그가 지난날 나라앞에 죄를 짓고 사회와 집단, 지어 부모처자들한테서까지 버림을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쪼박의 량심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며 재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인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3년 1월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결론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조선로동당의 품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세포비서들이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사람들에게 진정을 바쳐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사람들에게 진정

을 바치라!

정녕 천만자식들을 한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주는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정깊은 목소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그 량심을 귀중히 여기고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고계신다.

어떤 사물현상에서나 1%라고 하면 거의나 무시하는 경우가 례상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1%라고 하면 흔히 매우 보잘것없는것으로 생각하거나 무시해버린다. 그것은 1%가 해당한 사물현상의 존재와 발전에서 거의나 의의를 가지지 않으며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사물현상이든지 그 내용의 99%에 변화가 오면 그 사물현상은 더는 존재할수 없게 된다. 다시말해서 그 사물현상으로서의 고유한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만다.

인간의 량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리치가 작용한다. 량심은 인간의 고유한 미덕이며 사람들을 자각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에로 추동하는 정신적힘의 원천이다. 사람에게는 량심이 있기에 주위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함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량심을 더럽히면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규탄과 배격을 면할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됨됨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량심에 대하여 반드시 이야기하는것이다.

조선인민들 한사람, 한사람을 자신의 살붙이처럼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누구나 단정해버리고마는 1%의 량심마저도 귀중히 여기시며 믿어주고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와 집단에서 과오를 범하거나 나라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뜨겁고 열렬한 인간사랑, 넓은 도량으로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시기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고계신다.

한 인간의 1%의 량심을 믿고 그것도 절대적으로 믿고 그에게 재생의 넓은 길을 열어준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한 인간의 1%의 량심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은 설사 엄중한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1%의 량심만 있다면 절대적으로 믿으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총적지향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고 믿음이다. 법도 인민을 위해 필요한것이지 법적처벌이나 제재 그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것이 그이의 의도이다. 이러한 숭고한 의도를 지니고계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람문제를 대하는데서 법규범과 규정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 인민에 대한 사랑을 더 앞자리에 놓을것을 요구하고계신다.

돌이킬수 없는 과오를 범한 사람들을 넓은 도량을 지니시고 품어주며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마음은 언제나 병신자식, 말썽많은 자식일수록 더 위해주는 친부모의 심정그대로이다.

예로부터 어머니는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일컬어왔으며 어머니는 병신자식을 위해 더 마음을 쓴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듯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에 안아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며 당과 뜻과 정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는 투철한 의지를 지니시고 사랑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뜨거운 인정으로 가득찬 어머니의 심정그대로 병든 자식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려보시고 사랑과 정으로 따뜻이 품어 전진하는 대오에 떳떳이 내세워주고계신다.

조선의 어느 한 탄광의 굴진공들은 인간사랑의 대화원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난 사

람들이다.

이들은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조국앞에 진 빚을 땀으로 씻을 결의를 담은 편지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리였다.

그들은 편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속죄의 마음을 아뢰이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남먼저 들어설것이라고 굳게 결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들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동지들의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보았다고, 우리 당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는 사랑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사람은 믿음과 사랑속에서 사는 존재이다. 사랑과 믿음을 받지 못하는 인간은 비록 육체적생명이 있다 해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과 믿음이자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삶이자 사랑과 믿음의 련속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한 사랑과 믿음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과 믿음은 다름아닌 자기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이다.

하물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그늘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조선인민모두의 운명과 미래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속에 삶을 누리는 존재로 되였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영광은 없는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어버이의 믿음과 사랑속에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난 사람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위훈을 떨치고 공로자로, 영웅으로 자라나고있다.

참으로 숭고한 인간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는 조그마한 량심만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의 죄가 어떻든 성쌓고 남은 돌처럼 버릴 인간이란 단 한명도 없다.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 관용으로 가슴속의 절망도 환희로 바꿔주

고 역적이 될번한 사람들도 다시금 혁명대오에 세워주어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는 인간사랑의 위대한 품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미스러운 가정주위환경으로 하여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값높은 삶을 누려나가도록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12월 26일 불미스러운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로 하여 마음속상처를 안고있던 귀화한 일본인녀성 림경심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구절구절마다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다음과 같은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우리 당은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깊이 품어주고 내세우고있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놓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어루만지고 살점도, 피도 서슴치 않고 주는것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하는것입니다.

리철호동무가 꿈에도 소원하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데 대하여 그리도 기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 편지에서 읽어보며 나도 정말 기쁩니다.

리철호동무가 맡은 일을 잘하도록 우리 당에서 잘 이끌고 도와주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의지해주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은

2012. 12. 26》

림경심은 조선사람인 이붓아버지를 따라 1961년 9월 공화국으로

들어와 귀화한 일본인녀성이다.

자본주의사회인 일본에서라면 남편이 조선사람이라고 민족적차별을 받으며 살았을 그는 은혜로운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타민족성원이라는 그 어떤 차별도, 혈육이 없다는 그 어떤 외로움도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그는 자식들이 점점 커갈수록 자신이 일본인인 탓으로 하여 자식들의 운명에 곡절이 있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은근히 원심을 쓰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이러한 우려는 맏아들이 나라앞에 죄를 짓고 3년이나 법적처리까지 받은것으로 하여 더 깊어지게 되였고 그래서 아들의 조선로동당입당을 거의나 불가능한것으로 생각하였다. 일본인으로 태여난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고 먼저 간 남편에 대한 한탄도 하면서 괴로움과 눈물속에 몸부림친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어머니당에서는 더는 건질수 없는 운명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그의 아들을 청년동맹초급일군으로 내세워주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창립 60돐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시켜주었다. 뿐만아니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원산농업종합대학(당시)을 졸업시켜 작업반장으로까지 키워주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대오에 떳떳이 내세워주었다.

복잡한 가정주위환경과 불미스러운 사회정치생활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고대하는것은 믿음이다.

바로 그래서 림경심녀성은 자기 가정의 남모르는 고충과 아픈 마음까지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며 현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고 한점의 그늘없이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에 격정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흘리며 충성의 맹세를 담아 그이께 삼가 편지를 올렸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친어버이의 정이 차고넘치는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던것이다. 그것은 자식이 모진 시련끝에 아

픈 상처를 가시였다는 기쁨의 소식을 받은 고향집어머니의 부드럽고 정깊은 기쁨의 목소리그대로였다.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오히려 우리 당을 믿고 의지해주는 마음에 감사를 드린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필서한이 당보에 실리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은 이렇게 넓고도넓은 사랑의 품이다.

조선인민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것은 결코 그이께서 당과 국가의 령도자이시여서만이 아니라 조선인민모두를 따뜻한 정, 사랑과 믿음으로 품어주시고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빛내여주시는 삶의 은인이시기때문이다.

5) 끝없이 가꾸시는 아이들의 행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랑하시고 위해주시는 그 인민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것을 즐거워하는것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정의 구체적표현이라면 새 세대들의 행복을 가꾸어가는데서 삶의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는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최고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귀여워하고 아이들속에 계시는것을 제일로 좋아하실뿐 아니라 새 세대들의 행복을 가꾸어가는데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찾으신다.

새 세대들의 행복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이 너무도 웅심깊고 그 헌신이 그리도 눈물겨워 온 나라 인민은 뜨거운 격정의 눈물짓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우리 아이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뜨거운 사랑으로 지켜주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는 억척의 의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를 천백마디의 말로도 다 표현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중첩첩 막아서는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을 벌리시면서도 아이들의 행복한 래일을 그려보군 하신다. 자신께서 그려보신 행복동이들의 래일을 현실로 펼쳐주시려 나라의 천만재부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며 새 세대

들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물겨운 헌신의 낮과 밤이 있어 이 땅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더 높이 울려퍼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호텔이 가는 곳마다 일떠서고있으며 조선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왕국으로 더욱 훌륭하게 전변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한없이 다심한분이시다.

뜨거운 심정으로 아이들의 생활을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은 아이들만 따뜻하고 행복하면 추운줄도 힘든줄도 아픈줄도 모르는 다심한 친부모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에게 친부모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이 세상 어머니들의 정을 다 합친다 해도 아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한 어버이정에는 비길수 없다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혈연의 정과 사랑에 의해 오늘은 각 도마다에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이 현대적으로 건설되였다.

아이들이 리용하는것이라면 아무리 작은것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다심한 어머니정을 기울여 세심히 관심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련이어 펼치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제아동절을 맞는 평양애육원 원아들을 찾으시였던 다음날인 2014년 6월 2일 아침이였다.

애육원마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줄연줄 들어섰다.

애육원의 종업원들은 무슨 일일가 하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뒤미처 갖가지 음식들을 실은 여러대의 자동차들이 줄줄이 애육원마당이 비좁도록 들어와 멈추어섰다.

아직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있는 평양애육원 원장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과 격정에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예고도 없이 조용히 평양애육원의 마당에 들어서신것은 하루해가 저물어가던 국제아동절 저녁무렵이였다. 국제아동절을 맞는 평양애육원 원아들이 보고싶어왔다고, 내가 아이들의 명절날에 애육원 원아들을 찾아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겠는가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미소에 온 애육원이 눈부시게 밝아졌다.

허물없이 철부지원아들과 어울려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행일군들이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고 말씀드리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의 바쁘신 시간에 대하여서는 감감히 잊으신듯 애육원 원장에게 원아들이 저녁밥을 언제 먹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는것이였다.

원장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며 스스럼없이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다.

6.1절식사차림표도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육원에 료리사들을 보내여 원아들에게 꿩고기완자를 만들어먹이도록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원장은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하고 사려깊은 심중에 원장도 종업원들도 눈시울을 적시며 그린듯 서있는데 **김정은**동지께서 문득 동행한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는것이였다.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주시였는지 애육원의 원장과 종업원들은 모르고있었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은 원장에게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아들에게 특별연회를 차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나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해주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애육원에 성대한 특별연회상이 펼쳐졌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도, 군대의 책임일군도 식탁에 마주앉은 원아들에게 한 아이, 한 아이 사이다며 단물도 부어주고 수저도 집어주었다. 아이들도 좋아라 떠들고 일군들도 즐겁게 웃었다.

그러나 애육원의 원장과 종업원들은 소리없이 울었다.

세상에 없는 특별연회였다. 혁신자나 공로자도 아닌 철부지원아들을 위해 이런 연회가 펼쳐졌다는 이야기가 동서고금에 어디에 있었던가.

아이들이 손톱눈 하나라도 상할세라 친어버이의 마음으로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하신 손길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설치된 절벽톺아오르기기재의 깔개에도 깃들어있고 장난이 세찬 아이들이 기대여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란간이 떨어져나가면 사고가 날수 있다고 하시며 당장 보강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신 이 야영소의 복도란간에도 어리여있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아무리 훌륭하게 꾸려진 창조물에도 자그마한 부족점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이 리용하는 모든것은 완전무결해야 한다고 보시며 자그마한 부족점도 스쳐지나지 않으신다.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면서 실내수영장과 홀사이를 막아놓은 유리에 삼각형표식을 하든지 무슨 장식을 해주어 아이들이 유리를 들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부족점과 그 퇴치방도까지 일일이 깨우쳐주신것이라든가, 평양육아원을 찾으신 그날 육아원 앞마당에 깔아놓은 고무판을 바닥에 접착제로 붙여주어 원아들이 고무판우에서 뛰놀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신것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측면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신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먹이고 잘 해입혀 내세워주고싶어하신다.

힘이 들어도 제손으로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해입혀 내세우고싶어하는것은 모든 부모들의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소원이다.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먹이며 조선인민이 만든 새 교복에 자기 나라 교과서와 학습장이 든 자기 나라의 책가방을 메고 학교길을 오고가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오늘도 조선인민모두가 눈시울을 적시며 바라보는 새 교복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2022년 1월 1일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무슨 일로 새해 첫날에 찾으실가 하는 생각을 안고 일군은 한달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로 달려갔다.

옷깃을 여미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던 일군은 그만 못박힌듯 한자리에 굳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학생들의 새 교복견본을 보시며 환하게 웃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일군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잠시후 일군에게 시선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반가운 기색을 지으시며 어서 오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주런이 걸려있는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의 새 교복견본들을 바라보시며 전국의 학생들에게 만들어입힐 새 교복의 견본들을 잘 만들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새로 만든 교복견본들이 다 좋은것만큼 그 견본대로 교복을 성의있게 잘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입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에게는

잊지 못할 나날이 되새겨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학생들의 새 교복도안을 창작할데 대하여 말씀하신것은 두해전인 2020년 8월 15일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다시 만들어입힐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교복도안을 잘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새 교복도안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던 어느날 창작지도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사진자료들을 받아안게 되였다.

그들의 가슴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흥분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새롭고 특색있는 도안을 내놓을 열의를 안고 창작에 달라붙었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에 자기들의 지혜와 재능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여 마음속고충도 컸던 그들이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 교복도안창작에 필요한 사진자료들까지 친히 한장, 한장 골라 보내주시였으니 그들의 가슴이 어찌 격정으로 설레이지 않을수 있으랴.

그렇듯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창작가들은 수많은 도안들을 손색없이 창작하여 내놓을수 있었다.

나라의 천만사로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이 보고드린 도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다.

그날은 2021년 8월 28일이였다.

새롭고 특색있는 도안이 완성되였을 때 모두가 기뻐하였지만 그를 비롯한 해당 부문 일군들은 걱정도 없지 않았다.

사실 온 나라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해입히자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야 했다. 더우기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하여 나라의 경제사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웠다.

하여 일군들은 새 교복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한 문제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고드리면서 죄스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나라의 자금사정이 아무리 긴장하다고 하여도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가방, 신발을 만들어입히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지에는 추호도 드팀이 없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는 아낄것도 주저할것도 없다고, 력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의 교복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우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교복생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공업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나간 일을 되새기는 일군을 정깊게 바라보시면서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다 해입히면 정말 한시름을 놓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은 목이 메여올랐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중에는 자식들을 잘 키워 내세우고싶어 마음쓰는 조선의 천만어머니들의 시름이 꽉 차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3년 12월에 열린 제5차전국어머니대회에서 나는 지금도 우리 당과 정부가 많은 품을 들여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영양가높은 젖제품을 매일 먹이고 전국의 학생들에게 《소나무》책가방과 교복, 학용품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소년궁전들과 야영소, 소년회관들을 변모시킨것이 참으로 보람스럽게 여겨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 천만재부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옥류아동병원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이르는 곳마다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골간, 기둥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하시는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의 창조자이시다.

아이들의 행복을 가꾸어가는데서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어떤 사람들로 교육교양하는가, 그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주는가 하는것은 대단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새 세대들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 그들모두를 혁명의 골간, 기둥으로 키우는것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의 동심세계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꾸려나가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아이들이 리용하는 모든것을 설계하고 창조하는데서 그들의 년령심리적특성과 동심을 잘 반영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년기와 소년기의 아이들의 심리적특성이 서로 다른것만큼 그들의 동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주는것은 그들에게 건전한 사고방식, 과학적인 인식능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형성시켜 앞날의 역군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아이들의 동심세계를 제일 잘 아시고 그것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부모의 심정은 옥류아동병원의 입원실에 꾸려진 유희오락공간과 벽들에 장식된 동화그림들에도 어리여있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구호들과 평양애육원의 지능놀이방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아이들에 대한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무엇을 하나 보시고 그 어디를 찾으시여도 언제나 학생소년들과 어린이들의 견지에서 대하시며 또 모든 공간과 요소들이 철저히 아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계기가 되고 그에 복종되도록 요구하시는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데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내세우시는 요구성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의 동심만을 만족시켜주는데 있지 않다. 모든 아이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참된 혁명의 골간, 나라의 역군으로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하

는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이다.

나라의 곳곳마다에 일떠선 아이들의 궁전이며 행복의 요람인 학생소년궁전들과 소년회관들, 야영소들, 수도 평양에 일떠선 과학기술전당,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릉라곱등어관과 립체률동영화관 등 수많은 시대의 창조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교육중시사상을 구현하여 학생소년들과 어린이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으로 되고있다.

온 나라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과 헌신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는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왕이며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펼치신다.

하셔야 할 일이 많고 가보셔야 할 곳도 많으시였건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명절날에 혁명학원의 원아들과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부터 찾으시였으며 아이들을 위해 바치는 시간은 아깝지 않으신듯 그들과 꼭같이 소년단넥타이를 매시고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도 참석하시였고 소년단원들과 나란히 앉으시여 음악회도 관람하시였다. 희한한 축포의 꽃바다를 하늘가득 펼쳐 조국의 미래인 소년단원들의 앞날도 축복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등산길을 걸으며 야영생활을 하던 학생들이 받아안은 꿈같은 사랑의 이야기이며 유치원꼬마들과 학생소년들이 올리는 미숙한 편지들을 빠짐없이 보아주시고 보내주신 사랑의 친필회답서한들은 어린

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이 펼친 감동적인 대서사시들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속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아이들의 과외교양기지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였다.

눈부신 황홀경을 이루고있는 소년궁전들의 여러 소조실들과 훈련장들, 수영관과 체육관의 그 어디에 들어가보아도 명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첨단설비들이 갖추어진 소조실들에서 만만한 야심과 크나큰 포부를 안고 주체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인재들로 자라나고있는 학생소년들의 모습도 대견하지만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펼쳐진 희한한 선경들을 갖가지 색실로 한뜸두뜸 수놓아가는 수예소조 처녀애들의 모습은 더더욱 귀엽기 그지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실습용차를 타고 미래의 꿈을 안고 기운차게 달리는 자동차소조원들, 전문배우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하게 꾸려진 소조실에서 훈련에 열중하는 무용소조원들과 성악소조원들, 국제경기도 할수 있을 정도로 품들여 꾸려진 체육관과 수영관에서 자기들의 기술동작들과 기교동작들을 익히는 아이들의 열기띤 모습 …

이렇게 꾸밈없는 웃음과 희망속에 끝없는 미래에로 내달리는 아이들의 활기띤 모습에 부강번영에로 힘있게 치닫는 조선의 모습이 담겨져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억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소년궁전들뿐 아니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소년단야영소, 강원도12월6일소년단야영소와 같은 학생소년들의 야영기지들이 현대적으로 더욱 훌륭하게 꾸려져 아이들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언제인가 미국의 CNN방송이 전한 기사내용은 의미심장하였다.

《올여름에는 벌찬 자식들을 달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는지. 그런 자식들을 조선으로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싶다.》

장난이 세차고 잠시도 가만히 있으려 하지 않으며 처음으로 맞다들린것이라고 하여도 인차 싫증을 느끼면서 또다시 다른것을 찾는것이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장난이 세찬 아이들을 달랠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행복한 걱정거리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 벌찬 자식들을 《온순》하게 할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조선에 있으며 그곳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은정이 깃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라는것을 세계보도계의 거물로 자처하는 미국 CNN방송이 품을 들여 선전하였던것이다.

가는 곳마다 황홀경이고 보는것마다 경탄을 자아내는 멋쟁이야영소, 건물 하나, 계단 하나, 소개판 하나에도 학생소년들의 심리적특성과 지향을 반영하고 그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야영소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속에 솟아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라는것이 세상사람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동해명승 송도원은 온 한해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떠들썩하다. 푸른 물 설레이는 바다, 은모래가 아득하게 펼쳐진 드넓은 백사장, 파도를 넘나드는 흰 갈매기들이 날아예는 곳에 자리잡은 아이들의 궁전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조선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이 너도나도 모여들고있다.

야영소에 발을 들여놓는 첫 순간 아이들의 입에서는 《야!》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야영생활기간에도 아이들은 하루는 시원한 야외물놀이장에서 물미끄럼대놀이를 진행하고 다음날은 수족관에서 진귀한 바다세계를 구경하며 그 다음날에는 전자오락실에서 시간가는줄 모른다. 실내체육관, 립체률동영화관, 야

외활쏘기장 등 야영소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아이들의 기쁨과 행복, 흥분과 랑만이 차넘친다.

꿈같은 야영생활로 시간가는줄 모르는 어린이들의 기쁨넘친 모습, 한번 오면 영원히 떠나고싶지 않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그대로 아이들의 요람, 아이들의 웃음소리 날로 커가는 내 나라의 현실을 생동하게 엿볼수 있게 하는 산 증거이다.

어느 한 나라의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 맑고 푸른 조선동해의 기슭에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국제사회의 각별한 시선을 끄는것은 단지 그 황홀함때문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며 그들의 모든 꿈을 꽃피워주는 조선의 희한한 현실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야영소에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모든것이 야영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것이다. 둘째로 다른 나라들같으면 백만장자나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훌륭한 곳에 로동자, 농민, 탄부, 어로공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 지어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고있는것이다. 셋째로 이 모든것이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로선과 정책의 구현이며 산물이라는것이다. …

정녕 아이들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은 끝이 없어 조선의 아이들은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고 소리높이 노래부르고있다.

참으로 학생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나라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치시는 헌신과 로고는 끝이 없다.

새 세대들의 행복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가 있어 조선에서는 아이들의 행복넘친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6) 청년들에 대한 절대적믿음과 은정

조선청년들에게는 청춘의 슬기와 영예, 강용한 기상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호칭들이 많다.

《당의 청년전위》, 《혁명의 계승자》,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 《당의 결사대》, 《우리 당의 마음의 기둥, 억척의 지지점》,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로운 수호자》, 《강국의 보람찬 건설자, 당당한 주인공》, 《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 《가장 활력있는 부대》 …

어느 나라에나 청년들이 있다. 그러나 주체조선의 청년들처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호칭들로 불리우고있는 미더운 청년들은 일찌기 없었다.

청년들에 대한 부름에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 미래가 비껴있다. 조선청년들이 받아안은 고귀한 호칭들을 하나로 이어놓으면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청춘의 값높은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수백만 청년대군의 아름다운 청춘송가가 엮어지게 된다.

주체조선의 수백만 청년대군을 굳게 믿으시고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의 전략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청년들을 주체혁명의 한길에서 어깨겯고 끝까지 함께 나아갈 미더운 동지로 굳게 믿으시는분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당중앙은 우리 청년들을 내 나라,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어깨겯고 함께 나아갈 미더운 동지, 전우로 굳게 믿고있습니다.》

예로부터 믿음은 충신을 낳고 불신은 간신을 낳는다는 말이 전해져오고있다. 돈이나 리윤추구가 아니라 리념의 공통성에 의해서 사상의리적으로 결합된 혁명가들의 집단에서 사랑과 믿음은 대오의

통일단결과 공고발전,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생명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혁명의 길에서 동지들사이의 믿음은 곧 사랑이며 믿음이 없는 동지애란 있을수 없다.

참다운 동지인 청년들을 믿고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인민을 믿고 사랑할수 없으며 나라를 사랑할수도 없고 혁명을 할수도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신조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처럼 믿고 사랑하시는 동지들의 제일 앞자리에 언제나 미더운 조선의 청년들을 내세우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있어서 조선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들여 키우시고 자신의 곁에 세워주신 혁명의 계승자들이다. 바로 그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자신의 동지로 굳게 믿으시는것이다.

끊임없는 세대교체과정을 동반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청년들이 혁명의 피줄기를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갈 때에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이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끝까지 완성되여나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여곡절과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청년들, 오직 자기 수령만을 알고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조선의 새 세대 청년들을 자신의 미더운 동지로 굳게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자기 령도자의 뜻에 무한히 충직하고 령도자의 믿음에 더없이 성실한 조선청년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에서 커다란 힘과 고무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사상정신세계는 오늘 참으로

숭고한 경지에 올라서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조선청년들의 사상정신세계가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것은 2016년 2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된 후 단 이틀동안에 전국적으로 백수십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다른 나라들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탄원은 단순히 적들에 대한 분노의 폭발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자기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죽음도 맞받아나갈 조선청년들의 높은 정신세계의 과시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불신과 알륵을 조장, 격화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며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저들의 패권주의적야욕을 채우고있다.

세계적인 열점지역과 분쟁지역들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면서 헛된 피를 흘리고있으며 반제자주적인 정권들을 전복하는데 앞장서고있다.

분쟁으로 시달리는 여러 나라와 지역들뿐 아니라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망을 좌우하는 절실한 문제인 청년문제가 좀처럼 해결할수 없는 난문제로 되고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청년들의 신념의 노래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믿고 따르는 조선청년들의 충성의 세계에는 하늘이 열백번 뒤바뀌여도 변치 않을 혁명적신념과 의리가 있고 령도자께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가려는 량심과 도덕이 있다. 령도자에 대한 조선청년들의 절대적믿음에는 그 어떤 사심도

없고 가식도 없다.

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슬기와 지혜,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신념과 철의 의지가 있어 조선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사랑의 력사가 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청년들을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내세워주고계신다.

청년들은 혈기왕성하고 용감하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세대이다. 청년들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고상한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자고 결심하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내는 투지와 패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훌륭한 기질로 하여 청년들은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투쟁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활력있는 부대로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들이 피끓는 청춘과 불같이 뜨거운 심장을 바칠 때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수백만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세계를 압도할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있으며 당중앙이 작전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세상에는 력사의 변두리에 밀려나 사회의 우환거리로 버림을 받고있는 청년들이 적지 않지만 조선청년들은 자기 령도자와 인민의 아낌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위력떨치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일어나 기세를 돋구고 혁신을 일으키는 청년들의 드높은 투쟁열의로 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것은 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조선의 미더운 청년들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에게 《당의 전위대, 익측부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며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적극 내세워주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당의 전위대, 익측부대라는 고귀한 칭호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오늘의 조선청년들은 당의 청년중시정치에 떠받들려 준엄한 고난의 시련을 이겨낸 긍지높은 세대이며 시련의 불길속에서 성장한 억센 청년전위들로서 우리 당의 익측을 믿음직하게 담당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 언제인가는 우리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척후대의 기본사명은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 질풍같은 속도로 혁명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있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대기념비적 창조물들마다에는 조선로동당의 척후대, 익측부대인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이 아로새겨져있다.

자신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에 다시없을 믿음을 안겨주시고도 도리여 청년들을 마음의 기둥으로 새기시고 그들에게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할 젊은 주력부대, 우리 청년대오가 끌끌하기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은 수백만 조선청년들의 마음속에 친근한 어버이의 모습으로 영원히 간직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청년들이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가장 값높고 보람있는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류력사에 청년들은 어느 시기에나 있었으며 지금도 모든 나라와 민족은 수많은 청년들과 그와 관련된 조직과 단체들을 가지고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을 위해준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이어 청년들에 대한 전설같은 사랑의 력사를 아름답게 써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같으신 위인은 없었으며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아래서 청춘의 그 이름을 빛내여나가는 조선청년들과 같이 행복한 청년들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가정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야 부모들의 대를 옳게 이어나갈수 있는것처럼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잘 키워야 세대와 세대, 세기와 세기를 넘어가며 혁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질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들을 잘 키우는것이야말로 대를 이어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업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다.

청년들에 대한 사랑과 은정에서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들이 건전한 사상정신을 지니고 청춘시절을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시절로 빛내이도록 이끌어주는것이다.

인간의 변질은 사상정신의 변질로부터 시작된다. 청년들인 경우에는 다른 물에 쉽게 물들수 있는 년령심리적특성으로부터 그것이 더욱 현저히 그리고 빨리 나타난다.

청년들이 사상적으로 건전하면 청춘시절을 아름답게 빛내일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타락하면 사회적비난의 대상으로밖에 될수 없다. 결국 청년들을 고상하고 견결한 사상정신을 지닌 강자들로 키워 그들이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 귀중한 청춘시절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함에 아낌없이 바치도록 하는 사업이야말로 청년들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고 가장 큰 은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등한시한 결과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청년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고 타락하

게 되였다. 사회주의를 지키는데서 제일 맹수가 되여야 할 청년들이 도리여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는데 앞장서다나니 종당에는 전세대가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는데 청년들이 돌격대의 역할을 하는 비극적현상까지 초래되였다.

지금도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하는 나라와 민족들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꽃으로 떠받들리워야 할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사회적비난의 주되는 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청년들을 제일로 아끼고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청년들이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집단으로, 사회주의를 앞장에서 옹호하고 받드는 전위대로 자랑떨치고있다.

조선의 청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더해만 가는 사랑과 은정속에 곳곳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수도의 새 거리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고 몸소 착공식장에 나오시여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그 품에 바로 조선의 청년들이 안겨산다.

2024년 1월 6일 평양의 전위거리건설장에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위거리건설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사과를 실은 여러대의 대형화물자동차가 건설장에 련이어 도착한것이였다.

그날 전위거리건설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을 받아안은 청년들이 목메여 터치는 《만세!》의 함성으로 떠나갈듯하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속에 전위거리건설장에서 위훈을 세운 수백명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신년경축행사에 참가하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선물을 가슴가득 안고 돌아온것이 불과 며칠전이였다.

그런데 당중앙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해 첫 진군길에 과

감히 떨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또다시 각별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니 온 건설장이 격정의 도가니가 되여 끓어번지였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위거리건설장으로 용약 달려온 청년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크나큰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언제인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이 한생에 두번다시 오지 않는 청춘시절을 보람찬 건설전구에서 의의있게 보내기를 바라시며 그들에게 《나의 청춘시절》이라는 글발이 씌여진 일기장도 보내주시였다.

전위거리건설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갖가지 식료품들을 안겨주신데 이어 료리사들까지 보내주도록 하신 어버이정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여기에는 진정 청년들이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영예로운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하기에 그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청년들처럼 행복한 청년들은 이 세상에 없다는 신념을 더욱 백배하며 그이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진정 전위거리건설장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은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는 믿음과 사랑의 결정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이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훌륭히 일떠세운 거리의 이름도 청년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해 《전위거리》로 부르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청년들을 그리도 사랑하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년 8월에 평안북도피해복구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피해복구전구로 떠나는 청년대오에 오래도록 손저어 바래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청년들을 사랑하고 중시

하는 기풍이 차넘치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다.

청년사랑, 청년중시는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하며 당일군들은 물론 사회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누구나 청년들의 교양자가 되고 학부형이 되여 그들을 옳게 교양하며 청년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적극 도와주어 새 세대들이 전 국가적, 전 사회적인 지도와 방조속에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이다.

언제인가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기에 앞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나주신 모범적인 청년미풍선구자들속에는 강선땅의 20살 난 처녀도 있었다.

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키우고있는 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처녀어머니》라는 말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생겨날수 있다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을 상상도 하지 못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청춘들이 너도나도 따를 미덕의 거울로 내세워주신 《처녀어머니》!

위대한 조선로동당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속에서만 나올수 있는 미덕의 소유자인 《처녀어머니》야말로 청년중시의 대화원속에 피여난 또 한송이의 아름다운 꽃이였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청년들을 중시하는 혁명은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리하기마련이다.

지칠줄 모르는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세기와 년대를 이으며 기적과 위훈을 떨쳐가는 조선청년들, 천리방선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선 일당백군인들을 비롯하여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가는 새 세대 청년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는것이 조선의 자랑찬 모습이다.

7) 일심단결의 대가정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노래《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조선인민 누구나 즐겨부르는 시대의 명곡중의 하나이다. 남녀로소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위대한 어버이들의 품속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집, 혈연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로 가슴부풀어오르고 눈굽이 쩌릿이 젖어든다.

전체 인민이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랑의 화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념으로 간직하신 필생의 좌우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온 사회를 조선인민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나가는 것은 사람들이 수수천년 지향하여온 념원이고 리상사회이다.

한 가정의 행복은 결코 풍부한 물질생활에 의해서만 규정되는것이 아니다. 아무리 물질생활수준이 높아도 혈육들간에 서로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라는 대집단속에서 사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도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기풍이 서있는가 서있지 않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아무리 풍부한 물질생활을 누린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대립과 갈등속에서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각종 사회악이 만연되여 래일에 대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속에서 산다면 그런 생활은 결코 행복한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친형제처럼 서로 돕고 이끌고 위해주면서 화목하게 사는 생활이야말로 인류의 념원이 실현된 가장 행복한 생활이라고 할수 있다.

인류의 세기적념원이 현실로 꽃핀 나라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신 조선이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전체 인민이 친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조선사회의 참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한 집안식솔처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나가는데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협력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여기에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물젖어 사회성원들이 온갖 사기와 협잡, 반목과 질시, 약육강식과 패륜패덕에 의한 항시적인 불안속에 사는 자본주의생활과 구별되는 조선의 사회주의생활의 본질적특성의 하나가 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온 사회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조선식사회주의의 본태도 령도자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일군들의 헌신을 떠나서는 고수될수도, 높이 발양될수도 없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고 온 사회의 화목을 도모하는데서 일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시며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해 강조하군 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일군들은 자기앞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로 삼으신 인민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을 받들고 존대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몸소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고계신다.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더 잘 구현하여 사회주의본태를 살리는 문제로부터 인민들의 마음속고충을 가셔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살려는 조선인민의 리상과 꿈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과 로고는 조선의 모든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위대한 귀감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을 정히 받드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발휘한 헌신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하기에 조선에서의 일심단결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지고있으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의 향기가 더욱더 짙어가고있는것이다.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뜻에 매혹되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건말건 사회와 집단, 후대들을 위한 길에 자신의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다.

그들속에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섬마을과 최전연지대, 산골마을의 학교들에 자원진출한 수백, 수천명의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일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2017년 9월 어느날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교

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못잊을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바쳐가고있는 평범한 교육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데는 그 어떤 중대한 성명이나 천백마디의 말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숭고한 의미가 깃들어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부터 시작하여 로동당만세소리가 온 강산에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높으신 뜻이다. 한없이 숭고한 그 뜻에 떠받들려 온 나라 가정들이 위대한 어버이를 가장으로 높이 모신 화목한 대가정의 식솔들로 랑만과 행복속에 살아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과 헌신적인 령도는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조선에서는 남이 겪는 불행과 재난을 강건너 불보듯하는 다른 나라들에서와는 달리 남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자신의 불행과 아픔으로 여기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끝없이 발휘되고있다.

련이어 들이닥친 개천의 조양탄광지구와 검덕지구, 라선땅과 함북도 북부지역에서의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나날은 우리 사회에 차넘치는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을 남김없이 과시하여 온 세상을 깜짝 놀래운 잊지 못할 나날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는 가운데 온 나라 인민들의 성의있는 지원과 노력에 의하여 자연의 대재앙으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개천의 조양탄광지구와 검덕지구가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복구되였고 하나의 전

쟁을 치른것처럼 파괴되였던 조국의 북변 라선땅과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을 포함하는 함북도 북부지역에 각각 한달,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천지개벽이 일어나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강산을 진감하였다.

2024년 7월 신의주시와 의주군에 들이닥친 큰물로 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피해지역 인민들을 구원해주시고 그들의 림시거처지도 찾아주며 온갖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감동적인 화폭들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것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이 펼친것이며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준 사변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은 온 나라 인민들은 모든 력량을 살림집건설에 집중하여 큰물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피해복구와 더불어 참으로 많고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조선의 일터와 가정, 마을들에 꽃펴났다.

피해복구지역들에서 영용한 건설자들은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으며 각지의 인민들이 낮이나 밤이나 피해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며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다. 온 나라 인민들은 친부모, 친형제의 심정으로 피해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수많은 생활소비품들과 기자재들을 지원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참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미풍선구자들의 대렬이 날로 확대되여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나라의 고유한 국풍으로 되고있다.

수도 평양을 비롯한 화려한 도시들을 떠나 심심산중의 발전소건설장과 수천척 지하막장, 사회주의농촌벌, 수산전선과 새로운 개발

지들에 달려나가고 외진 산골과 섬마을의 교단에도 찾아가며 남을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주고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는 것을 청춘의 값높은 영예로, 보람으로 여기는 미풍선구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의 대가정에서는 언제나 인간사랑의 따뜻한 정이 끝없이 흘러넘치고있다.

2019년 1월 19일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에는 《사회주의 우리 집을 이런 참된 공민들이 떠받든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두눈과 두팔을 잃고 한다리를 의족한 특류영예군인과 가정을 이루고 그를 30여년간이나 돌보아온 안해이고 두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대후방가족인 동시에 당중앙의 불빛, 사회주의불빛을 지켜선 북창의 탄부들이 존경하며 사랑하는 성실한 후방일군이고 수많은 병사들이 어머니라 부르는 원군미풍열성자인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회안청년탄광 로동보호물자공급과 부원 김춘화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기사였다.

불같은 헌신과 애국의 길을 걸어온 한 녀성에 대한 기사를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를 따라배우기 위한 실효모임들이 열리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김춘화동무처럼 공화국의 긍지높은 공민으로 살겠다고 맹세를 다졌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것을 긍지로 여기며 자기의 피와 살도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2014년 12월 22일부 당보에는 뜻밖의 사고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고통을 겪던 평안북도 대관군의 한 로동자처녀를 8년세월 온갖 정성을 다해 치료하여 끝끝내 자기의 얼굴을 찾아준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산골군에 사는 평범한 로동자처녀가 19살 꽃나이에 자기 얼굴을 형체도 없이 잃은것은 다른 나라같으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행중의 불행이였다. 미용수술이 제일 값비싼 수술의 하나로 되여있

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뜻밖의 화상으로 잃어버린 얼굴을 다시 찾을 엄두조차 낼수 없는 바로 그러한 불행이였다.

화상이 너무도 심해 눈도 감지 못하고 숨쉬기도 가빠하였으며 밥한끼 먹는데도 몇시간씩 걸리던 처녀, 한두시간도 아니고 여러 시간, 한두번도 아니고 8년동안 무려 100여차례의 크고작은 수술을 받은 처녀,

불행을 당한 한 처녀에게 얼굴을 찾아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친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의사들과 공장당위원장(당시)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 남모르는 수고와 정성을 아낌없이 기울인 수많은 평범한 인간들도 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인간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위험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려는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동지들과 집단의 기쁨과 행복이자 자기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고결한 인생관이 사람들모두의 심장에 자리잡고있어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오늘도 조선인민은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시각에 한몸을 기꺼이 내대여 동지들을 구원한 박태선영웅과 리창선영웅, 폭발물처리대원들이였던 김금수, 한병남영웅들을 잊지 못하고있다.

2012년 1월 어느날 박태선동무는 아침 일찍 막장에 들어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된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신입채광공과 함께 천정전반을 감시하며 작업을 지휘하던중 갑자기 떨어지는 큰돌을 자기 한몸으로 막고 혁명동지를 구원하였다.

리창선동무도 2012년 2월 어느날 세명의 녀성분조원들과 함께 벼랭상모판씨뿌리기에 필요한 흙을 파던중 무너지는 흙벽을 한몸으로 막고 동지들을 구원하였다.

돌발적인 위험요소를 제일먼저 발견한 그들이 만약 한걸음만 뒤

로 물러섰으면 살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동지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지들과 집단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그들의 희생적인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사랑과 믿음이 어린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박태선동무는 훌륭한 인간이라고, 이 동무의 영웅적소행을 잊지 말며 동지들을 위해 바친 그의 값높은 삶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도록 희생된 동무의 몫까지 합쳐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하신 친필과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친필에도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려는 어버이의 웅심깊은 사랑이 어리여있다.

위대한 어버이의 그 사랑에 떠받들려 박태선, 리창선동무들은 온 나라가 다 아는 공화국영웅으로 영생의 언덕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고있으며 그들이 일하던 소대와 작업반도 박태선영웅소대, 리창선영웅작업반으로 명명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폭발물처리대원들이 발휘한 영웅적 희생정신을 더없이 귀중히 여겨 온 세상이 알게 내세워주시고 떠나간 전사들에게 대해갈은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근심걱정없이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는 미풍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그 어느 나라에나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있다. 그들을 과연 누가 돌보아야 하는가, 과연 국가와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줄수 없단 말인가, 바로 이것이 어제도 오늘도 어느 사회에서나 제기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의 하나이다. 하기에 이런 측면에서도 해당 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인민성의 여부가 평가되는것이다.

오늘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살인과 강탈, 지어 제가 낳은 자식을 때려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러죽이며 목매달아죽이는 혈육간의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하여 건전한 리성을 가진 사람들을 아연케 한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떠들어대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밑바닥에는 넝마를 쓰고 한지에서 자는 사람들, 발을 구르며 무엇인가 애원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내버려지고 버림당한 사람, 그늘이 진 사람이 단 한명도 없으며 모두가 집단과 동지, 이웃들의 보살핌속에서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고있다.

태양이 없는 거목을 생각할수 없듯이 령도자의 따사로운 손길을 떠나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삶의 요람,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한 나라의 령도자가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과 늙은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속에 나라의 곳곳에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위해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양로원들이 짧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신설되였다.

아이들에 대한 보육조건이 완비된 보육실과 교양실, 아동도서실, 자연관찰실, 지능놀이실, 오락실, 종합놀이장, 물놀이장, 목욕실, 리발실, 치료실을 비롯한 모든 방들이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꾸려졌으며 거기에서 뛰노는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의 희한한 모습은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상을 그대로 펼쳐보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원아들은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로 훌륭하게 꾸려진 교사와 기숙사, 야외체육장과 체육관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진 사랑의 집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그 뜻을 인민들모두가 정성을 다해 받들고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성의껏 마련한 많은 량의 물자들을 원아들에게 거의 매달이다싶이 안겨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대오가 늘어나고있다.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같으면 천대와 멸시의 대명사로 되였을 부모없는 아이들이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속에서 사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르고 세상만복을 다 누리는 가슴벅찬 현실앞에서 조선인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와 더불어 더욱 밝아질 조선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혁명선배들을 끝없이 존대하시고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은 전국각지에 아담하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양로원들에도 깃들어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쓸모없는 페물로 치부되여 온갖 학대와 랭대를 받으며 살아갈 로인들이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를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선에서는 혁명선배로 떠받들리우고 웃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인생의 황혼기를 청춘시절에 못지않게 즐겁게 보내고있다.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의 기호와 취미를 고려하여 구색이 맞게 꾸려진 온돌침실과 침대침실, 단란한 가정적분위기가 깃드는 식사실과 늙은이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된 계단, 특색있게 꾸려진 외랑과 내정, 로인들이 밥맛이 날 정도로 일을 할수 있게 수경온실과 터밭들도 마련되여있는 현대적인 양로원에서는 흥겨운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더욱 굳게 결합되여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조선의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관계로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하는데서 사회제도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인민대중이 국가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여야 사회관계에 사랑과 믿음의 원리가 구현될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사회관계가 저절로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전환되는것은 아니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 하여도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이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을 이룰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사회관계는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로고와 보살핌속에서만 형성되고 끊임없이 공고화되여나갈수 있다.

조국의 아픔을 자기들의 아픔으로 여기고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문제, 제일 걱정하는 문제를 자신의 어깨우에 걸머지겠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가지고 한생을 바쳐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이 바로 인민들속에 사랑과 믿음의 참다운 인간관계가 뿌리내릴수 있게 한 정신적원천으로 되고있다.

어느 사회에나 선망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 따라배우고싶은 인생도 있기마련이다. 하지만 사회제도에 따라서 그 기준과 특징은 서로 다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거액의 재부를 한손에 거머쥔 재벌들이 뭇사람의 시선을 받는다.

그러나 돈과 재부, 개인의 명예와 출세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사람의 존경과 축복을 받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라도 더 좋은 일을 찾아

하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 아름다운 인간들이 사회주의미풍선구자로 높이 떠받들리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뜻과 정을 가슴에 새기고 동지들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기에 조선에서는 인간사랑의 따뜻한 정이 그 어디에 가나 뜨겁게 흐르고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매일 매 시각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면서 조선인민은 정이 흐르고 사랑이 뜨겁게 넘치는 사회주의화원에서 사는 커다란 자부를 느끼고있다.

물론 시련과 난관이 의연히 조선인민의 앞길에 가로놓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경제활성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지만 조선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자면 아직도 먼길을 헤쳐가야 한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가꾸시는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사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막아서는 고난과 시련을 맞받아헤치며 생기와 활기에 넘쳐 창창한 래일을 향하여 보무당당히 나아가고있다.

조선인민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더 높이 울려퍼질 사회주의대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4. 그이 없인 우리 못살아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듯이 조선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사로운 어버이품이 있어 조선인민의 오늘의 행복도 있고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천만사람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그리워하고 흠모하면서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운명의 피줄을 잇고 언제 어디서나 그이에 대한 열렬한 흠모, 한없는 그리움속에 사는것이 조선의 참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믿고 따르는 조선인민의 사상감정을 가장 소박하면서도 절절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이 없이는 정녕 못산다는 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어버이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우리 인민이기에 그이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곁에는 항상 어버이의 정을 소중히 안고 그이에 대한 그리움속에 사는 인민이 있다.

예로부터 사람은 그리움속에 산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가슴속에 그리움이 없으면 인생은 해가 없는 하늘과 갈다고 할수 있다.

인간이 체험하게 되는 모든 그리움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

리움은 인간의 정에 대한 그리움이다. 어려서는 부모의 정을 그리워하고 자라서는 가정의 정을 그리워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조국과 인민의 사랑을 그리워한다.

사랑과 정에 대한 그리움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인간이 한생을 그리움속에 살게 되는것은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뉴대로 결합시키고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더없이 귀중한 요인으로 되기때문이다.

조선인민이 자기 령도자에 대하여 품고있는 그리움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움들가운데서도 가장 숭고한 경지를 이루는것이다.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과 진실한 정에 대한 눈물겨운 고마움의 마음에서 움터나는 그리움이 바로 강요할수도 형상해낼수도 없는 조선인민의 그리움이다.

남녀로소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속에 하루를 보내고 새날을 맞이한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자기의 령도자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속에 사는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생각할수도 흉내낼수도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체취가 구석구석 슴배여있는 살림집들과 일터들마다에서, 지켜선 초소들과 전야들마다에서 그리고 교정과 연구실들마다에서 조선인민은 어버이의 살뜰한 사랑과 정을 느끼며 그이의 따뜻하고 친근한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른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미소를 그리워한다.

어버이의 사랑과 은정이 깃든 사과, 복숭아를 비롯한 과일을 해마다 기쁨속에 받아안을 때에도 삼석과수종합농장과 과일군의 사과바다속에서 그것을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들을 그려보시며 만시름 잊으신듯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태양같은 미소를 그려보며 눈굽을 적시는것이 우리 인민들이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민들레학습장과 멋진 교과서들 그리고 갖가

지 학용품들이 가득 들어찬 소나무책가방을 메고 해빛밝은 학교로 오가면서 자애로운 어버이의 미소를 그려본다.

잠을 자면서도 환하게 웃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만나뵈옵는 꿈을 꾸고 일을 하면서도 그이께서 자기 일터에 찾아오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실 날은 언제일가 하고 손꼽아 기다리는것이 조선인민이다. 그러다가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번 가까이에서 만나뵈옵고는 그이의 품에서 떨어지는것이 그리도 아쉬워 헤여지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자애로운 그이를 만나뵈올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것이 조선인민의 절절한 마음이다.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미소를 그토록 그리워하는것은 그이의 인자하신 미소속에서 더욱더 훌륭해질 자신들의 밝은 앞날을 보기때문이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면서 조선인민모두는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서라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모든것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과 정이 뜨겁게 어려와 눈굽을 적시고있다.

개인주의를 생리로 하며 인민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관계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착취계급사회에서 인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가란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선거경쟁기간이면 선거자들앞에서 현란한 약속도 하고 웃음도 지어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인민들에게 하는 약속이나 웃음은 저들의 통치권을 유지하고 인민을 지배하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거짓약속이고 위선적인 웃음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일단 선거에서 당선되면 언제 그러하였던가싶게 저들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인민들을 략탈하고 억압하는데 몰두한다.

조선인민이 자기 령도자를 진실로 그리워하고 언제나 뵙고싶어하는것은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인민의 행복속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환한 미소속

에 자기들의 행복이 있고 꿈이 있음을 너무도 잘 알기때문이다.

조선인민은 매일과 같이 TV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을 뵈옵는것을 자신들의 더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따뜻한 그이의 미소와 친근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하루 일을 총화하고 어버이의 그 사랑에 보답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군 한다.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이와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싶어하는것도 어버이의 자애로운 미소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싶은 절절한 그리움의 발현이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 단위, 어느 초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단위는 무슨 훌륭한 일을 하여 그이를 만나뵙는 영광을 지녔는가에 대하여 알고싶어하고 자기들도 그들처럼 일을 더 잘하여 자기 초소와 일터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는 영광과 기쁨, 행복의 순간을 맞이하려고 아글타글 노력한다.

세상에 자기 령도자를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최상의 영광,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는 인민은 조선인민밖에 없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나깨나 뵙고싶어 꿈에도 기다리고 그리웁던 그이를 뵈오면 누구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고싶어한다.

그 소원을 성취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함께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을 가보로 정히 보관하고있는 가정들이 조선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인민의 어버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은 행복한 사람들속에는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만나뵙고 미처 감사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한 섬초소 녀인들도 있고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두차례나 기념사진을 찍는 남다른 행운을 지닌 유치원꼬마들과 교양원들도 있으며

아버지원수님께 딱 한번만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고사리같은 손가락을 펴고 간청을 드린 귀여운 어린이와 당돌한 소년들도 있다.

기념사진을 찍어도 어버이의 제일가까이에서 찍겠다고 저마다 다가들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아들딸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마을과 학교, 공장과 기업소에 자랑하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가득차있는것은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끝없는 긍지와 함께 그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다.

그 그리움속에 매일 매 시각 환하게 웃으시는 친근하고 열정넘친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며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근한 존함만 불러도 기쁨의 파도가 일고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사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른다고 소리높이 웨친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하신 음성을 그리워한다.

자식들은 꿈에서도 어머니의 다심한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온갖 시름을 다 놓는다.

조선인민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못견디게 그리워하는것은 그이의 자애로운 음성에서 사랑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숨결과 믿음에 넘쳐있는 어버이의 진정을 심장으로 느끼기때문이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우리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음성이 2012년 6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던 뜻깊은 그날에도 조선의 수백만 소년단원들과 전체 인민은 그이의 따뜻하고 친근하신 정에 목이 메여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음성은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과 더불어 온 나라에 높이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한없는 그리움, 열렬한

흠모는 그이에 대한 끝없는 매혹에 기초하고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매혹은 흠모를 낳는 마를줄 모르는 샘물이며 어버이에 대한 흠모는 그 매혹이 터치는 열화와 같은 충성이다.

매혹은 결코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가장 위력한 힘은 정과 뜻이고 사랑이다. 령도자의 인정미와 뜻에 매혹된 인민들만이 령도자를 진심으로 따르고 받들수 있다.

인민들에게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정은 날마다 인민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샘솟게 한다. 어버이사랑으로 인민을 돌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에 끌리여 조선인민은 그이의 따뜻한 품에 스스럼없이 안겨들고 정으로 따르는 길은 고난도 행복이라고 고마움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부른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매한 인품에 끝없이 매혹된다.

고결한 인품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매혹시키는 미덕중의 미덕이다.

조선인민은 너무도 겸허하시고 소탈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기도 모르게 끌리여 누구나 마음속생각을 모두 아뢰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말 못할 사연까지 말씀드리군 한다.

조선인민은 험난한 길은 자신께서 모두 걸으시고 인민들에게는 행복과 영광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헌신성에 매혹되였다.

지금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두고 가슴 뭉클 젖는 행복이 날마다 커가는 세월이라고 한결같이 토로하고있다. 그것은 위민헌신의 려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만로고와 맞바꾼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나날이 더욱 매혹되고있다.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면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전변이 일어나지만 령도자를 잘못 만나면 세계적인 초대국도 하루아침에 만사람의 지탄을 받는 국가로 전락되고 인민들이 도탄에 빠진다는것이 지나온 력사가 피로 새겨준 교훈이다.

오늘 조선에서는 전면적국가부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있다. 최근년간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들이 일어나고 산천도 사람들의 정신세계도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신 원대한 구상이 하나하나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전체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통이 큰 작전과 련속공격전으로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속도가 창조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조직력과 통솔력, 전개력과 실천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들이다.

력사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해 바친 인민들의 고귀한 피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헛된것으로 되여버린 실례들을 수없이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세기적인 승리와 변혁을 이룩하고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정치리념이 구현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매혹되였기에 조선인민은 그이께서 구상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으며 그이의 사상과 의도, 뜻대로 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자신들의 꿈과 리상이 꽃펴날 휘황한 미래가 마중온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시는 로선과 정책은 다 자신들을 위한것이라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있기에 조선인민은 그이께서 맡겨준 과업들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해도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최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중앙이 정해준 시간에, 당중앙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관철하고있다. 이것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전변들과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나날이 높아가는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오늘 조선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결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대한 끝없는 매혹의 뚜렷한 증시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운명의 피줄을 잇고 그이만을 굳게 믿고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것이 조선의 참모습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 지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친다. 자기는 비록 배를 곯고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들만은 잘 먹이고 잘 입혀 내세우려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자식들은 자기를 낳아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품을 한시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삶의 품으로 여기는것이다.

때로는 비록 꾸중을 하고 아픈 매를 들어도 그속에 어머니의 진정이 있기에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들며 숨겼던 잘못도, 서슴던 허물도 그대로 터놓는것이 자식들의 꾸밈없는 행동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력사는 령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굳건하면 그 어떤 시련과 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가 활력에 넘쳐 전진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장구한 력사를 헤쳐온 혁명이라고 해도 쉽게 흔들리고 좌절되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조선에서는 인민의 신뢰심이 대하처럼 굽이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 계시면 지구도 든다는 신념의 웨침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는 속에 세계를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있다.

천백배로 굳건해진 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뢰심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진실하고 사심없는 믿음이다.

령도자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인민의 순결한 마음은 결코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에 의해 이루어질수 없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련전쾌승을 이룩하는 나날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억년드놀지 않는 신뢰심을 마음속에 새겨안았다.

령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공고성은 령도자가 인민을 어떻게 보고대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는 령도자를 인민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따르는것은 법칙이며 이것은 주체조선의 력사에 의해 확증된 진리이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있다.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기에 그이 없이 우린 못산다는것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사로운 품은 조선인민모두의 마음속에 지극한 어머니와 같이, 친혈육과 같이 한생토록, 죽어서도 안기여살 가장 귀중한 품으로 간직되여있다.

따뜻이 보살펴주는 그 손길이 조선의 모든 집집의 뜨락들에 미치고있으며 력사에 류례없는 역경속에서도 어버이의 그 사랑과 정이 펼치는 인민사랑의 시책들이 조선인민모두에게 피줄처럼 가닿고있다.

조선인민은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주의를 억척의 보루로 지키면서도 인민적시책을 변함없이 구현한다는것이 얼마나 힘든것인가를 고난과 시련의 언덕들을 넘으며 가슴에 사무치도록 느껴왔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온 나라의 모든 가정, 천만대중 매 사람의 운명으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중하를 다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새우신 심혈의 밤들과 걷고걸으신 고생길, 남몰래 묻으신 아픔과 흘리신 눈물이 얼

마인지 다는 알지 못하고있다.

조선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사로운 사랑과 은덕속에 빛나는 삶을 누리는 한가정의 식솔들이며 이 화목한 대가정에서는 누구나 인민이라는 하나의 자격만으로도 인간이 지녀야 할 모든 권리와 존엄을 당당히 누리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품을 온 세상 다 준대도 영원히 떠나서 못살 위대한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른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에 온넋이 끌리고 그이의 품을 떠나서 순간도 살수 없는 조선인민이기에 그이와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살며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눈다.

옳바른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여 고향도 가정도 다 빼앗기고 비좁은 배에 빼곡이 올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검푸른 대양에 몸을 맡기고 살 곳을 찾아 정처없이 헤매는 피난민행렬을 보면서 조선인민은 눈비에 젖을세라 품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을 떠나서는 정녕 한 순간도 살수 없다는 삶의 진리를 매일, 매 시각 체감하고있다.

그럴수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고갈 조선인민의 신념은 더더욱 확고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하늘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이 말속에는 영광넘친 길을 걸어도, 준엄한 길을 걷는다 해도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의 전부이고 대가정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려는 조선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응축되여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라면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라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지니고 오직 당중앙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의 강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조선은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한치의 동요도 없이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미래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아갈것이다.

붓을 놓으며

사랑의 억센 힘으로 제일락원 가꾸어가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전체 조선인민은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오직 그 운명의 손길만을 꼭 잡고 천리라도 만리라도 영원히 한길만을 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며 이렇게 웨친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만세!